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__긴조세대여 쫓기하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78학번. 구로공단 (신동노동문화원) 총무, 광명시의회 의원,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 유승희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현)

내가 생각하는 긴조 세대의 특징은 이렇다.

- 첫째, 시대 정신에 있어서 순수하다.
- 둘째, 활동하는 데 무지하게 헌신적이다.
- 셋째, 자리에 대해서 결벽증적이다.

긴조 세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거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기 헌신적인 운동을 하였다. 학생운동 이후 자신들의 할 일은 곧 현장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으로'라는 기치 하에 물밀듯이 공장으로 농촌으로 들어갔다. 긴조 세대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을 개척한 세대라고 해도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버린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많은 긴조 세대들은 이제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의 빛과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힘이 모여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온전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정권을 두 번이나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긴조세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려고 하는가?

다 이유가 있다.

우리의 빛과소금이 사회에서 빛이 바래고 짙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주화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이라는 민주화 정권교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얼차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열망했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신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78학번이니까 긴급조치9호가 무자비한 위력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던 때에 학생운동을 한 셈이다.

얼마전 영화 '그때그사람'을 봤을 때 정말 감회가 깊었다. 자신이 겪었던 과거를 투명하게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값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술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영화의 주인공 한석규가 10.26 사건 직후 그날 적막한 광화문과 한국일보사와 종합청사를 삼각점으로 한 광장 한복판을 승용차로 빙빙 돌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가히 당시 시대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날 밤 분명히 자고 있었다. 그런데 10월 27일 아침 공직생활 만 20여 년 가까이 하고 계시던 우리 아버지가 뿔마루에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새벽녘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소식을 접한 우리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엄마는 잼싸게 아버지 입을 막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만약 밖에서 누구라도 듣고 신고하면 공무원 아버지 신변에 큰일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에.

한석규가 승용차를 타고 절망적인 방향을 하는 장면과 그날 아버지의 외침이 너무나 명백하고 생생하게 연결이 되었다. 예술의 힘은 바로 이런 거구나. 실존과 역사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러한 힘. 이후 날이 갈수록 운동에 전념했고 '뉘' 학생으로 자리매김을 해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별' 달 기회를 잡지 못했다. 당시 대중화 노선에 집착하다보니 선도투쟁의 역할을 못한 셈이 되었다.

80년 봄에는 얼마전 이대 무용과 교수로 임용된 조기숙과 함께 몇 달 동안 이집저집 전전하며 도망다녔다. 그때 사촌오빠 친구 집에서도 숨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오빠친구의 아버지가 당시 경찰서장이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조기숙하고

는 김지은과 함께 1학년 때부터 기독교학생회 활동하면서 지겹게 붙어다니던 인연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우정은 지속되고 있다. 한때 기독교학생운동 내부에 아이덴티티 논쟁으로 그야말로 친구사이에 완전히 금이 갈 정도로 싸웠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찻잔 속의 태풍일뿐, 시대를 함께한 우리의 우정은 정말 깊고 오묘하고 달다.

긴조는 나의 청소년 시절부터 알아왔던, 삶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의 열정을 역사의식으로 접맥시켜 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나는 당시 이대 인문사회 계열이었고 3학년 때 운동권 애들이 다들 몰려가는 사회학과나 사학과(그래서 사회학과는 사회학과, 사학과는 사학과라고 했음) 중 사회학과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대 기독교학생회(KSCF) 활동과 새문안교회 대학부 활동을 통해서 접했던 민중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독일의 나찌즘에 항거했던 본회퍼의 정치신학에 심취해서 기독교학과로 전과를 했다. 78학번 기독교학과 졸업생은 불과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학과였지만 운동하면서 쌓아야 하는 철학적이면서 정신적인 소양을 두텁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수두룩했다. 얼마전 이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다. 78년에서 80년 광주민중항쟁운동까지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나는 학생운동의 조직적인 대중화에 관심이 컸었다. 그날 아래 윗층으로 가득찬 학생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바람이 새삼 떠올랐다.

긴조세대 대부분이 그렇듯이 학생운동을 지도한다면서 후배들 연애도 말리고 결국 '선배 잘못 만나서 인생 종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선배가 되었다. 이후 나 또한 그런 선배님들을 만나서 함께 민중교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구로공단 내 신돌노동문화원에서 85년부터 95년까지 활동하면서 공장활동,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활동을 했다. 95년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지방의원으로 출마, 당선되면서 제도정치권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출마하면서부터이다. 98년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여성국장, 총괄조직실장으로 보낸 8년 정도의 세월 동안 세 번 당이 바뀌는 과정을 보고, 정치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정치권에서 필요한 사람은 끈이 아니라 시대적인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긴조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수혈되어야 할 '피같은 존재'들이라고 나는 확인한다. 탁월한 시대정신으로 연마한 긴조세대들은 각

자가 처한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실하고 뛰어난 중견의 전문인들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계, 농민계, 예술계, 여성계, 학계, 기업계, 정보통신사업계, 법조계, 언론방송계, 정부 모든 분야에 두루 포진되어 있다.

긴조세대는 신선한 개혁과 민주화의 결정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딸, 아들에게 물려주기에 충분한 자질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 긴조세대여, 다시 한번 일어나자, 쫓기지 마자!